



정교회 주보

정교회 한국대교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성탄 축일 전 주일

성 이그나티오스 안티오키아의 주교순교자
제4조, 조과복음 7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에서

- 제4조 부활 찬양송 / 82, A 214
- 주일 입당송 / 14, A 42
- 성탄절 전 찬양송 / 208, B 245
- 성당 찬양송
- 성탄절 전 시기송 / 208, B 239
- 사도경 : 히브리 11,9-10, 32-40 / 208, 봉독서 640
- 복음경 : 마태오 1,1-25 / 209, B 246
-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암브로시오스 대주교의 성탄절 메시지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눈사태처럼,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발생하는 대사건들을 보면서 비관주의에 빠져버렸습니다. 시리아에서의 계속되는 유혈 충돌과 수많은 희생자들, 시나이 반도와 레바논과 파리에서 일어난 테러 사건과 그로 인한 무죄한 사람들의 죽음, 새로운 테러 공격에 대한 공포와 혼란, 오랜 경제 위기로 인한 빈곤과 실업의 증가, 특히 청년실업자들의 가난과 불안 등이 이 세상을 덮어버린 비관주의의 주된 요인들입니다. 해결책은 안보입니다. 문제는 더 쌓여만 가고 심화될 뿐, 마땅한 해결책이나 출구가 없다고 합니다.

그럼, 정말로 해결책이 없을까요? 오늘날의 비관주의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일까요? “이게 운명이야”라고 한탄하며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면서 그저 과국을 기다려야만 할까요?

물론 아닙니다. 교회는 위기에서 헤쳐 나올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교회는 어떤 정치적 힘이나, 경제적인 힘, 아니면 추상적인 사상에서 해결책을 찾지 않습니다. 해결책은 유일하신 한 분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필립비 2,9)인 하나의 경이적인 이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분은 탄생하기도 전에 이미 아주 오래 전에 이렇게 예

☞ 2면으로 계속



☞ 1번으로부터 계속

언되었던 분이십니다. :
 “그분이 우리 하느님이시다.
 아무도 그분에 비교될 수 없
 다. 그분이 모든 지혜의 길을 찾아내서어 당
 신의 종 야곱과 당신의 사랑을 받는 이스라엘
 에게 주시었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땅 위
 에 지혜가 나타나게 되었고 사람들과 함께 어
 울리게 되었다.”(바룩 3,36-38)

이 예언처럼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계셨고”(요한 1,14), 비로소 인간의 모든
 비극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타난 것입
 니다. 메시아이신 주님께서 “사람으로 이 세
 상에 오신”(디모테오 전 3,16) 다음부터 타락
 한 인간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바로 인간의 곁에는
 구세주가 계십니다. 성탄절 밤 대천사는 기뻐
 하며 그분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밤
 너희의 구세주께서 다윗의 고을에 나셨다.”
 그리고 교회는 오늘날까지 2천 년 넘게 “그는
 우리 영혼의 해방자이시고 구세주이시다.”라
 고 그분을 찬양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세주께서 제공한 해결책
 은 결코 마법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의 ‘협력’을 요구합니다. 하느님과 닮은
 모습이 되려고 사람이 노력하고 투쟁할 것을
 요청합니다. “사람은 온 힘을 다해 하느님을 닮
 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플라톤,
 Politeia, 613b)

하느님과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해 노
 려한다는 것은 성인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단순히 착한 사람이 아
 니라, 하느님과 같아 보이는 사람이 되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테오토코스(성모님)

께서는 그저 한 명의 착한 사람을 낳으신 것
 이 아닙니다. 예언자들도 그저 선한 사람,
 지혜로운 스승, 사회 개혁자라고 불릴
 어떤 한 사람에 대해 예언한 것이
 아니고, 우리 개개인 모두의 구원
 자, 해방자에 대해 예언하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임마누엘”, 즉 “우리과 함께 계
 시는 하느님”(마태오 1,23)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거룩함
 을 우리 모두가 본받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은
 하느님의 계명이기도 합니다. “내가 거룩하
 니 너희들도 거룩하게 되어라.”(레위기 20,7.
 26. 베드로 전 1,16)

거룩하게 되려는 노력이 세상을 파괴에서
 구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룩함의 길로
 나아갈 때 그만큼 세상은 거룩하게 될 것이고,
 인간의 탐욕은 진정될 것이고, 정의가 사람들
 의 관계를 지배할 것이고, 생명을 해치는 무
 기는 사라지게 될 것이고, 전쟁과 싸움은 줄
 어들 것이고, 평화가 이 땅에 깃들 것이며, 사
 랑의 하느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베들레헴의 거룩한 아기는 우리 각
 자의 마음 안에도 탄생하십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아기의 힘은 우리 마음에 거룩함을 향
 한 갈망을 낳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
 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거
 룩한 사람이 되는 것”(테살로니카 전 4,3)이
 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
 리들 자신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는 동기
 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 대아타나시오스
 의 잘 알려진 말씀은 우리 각자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처럼 될 수 있도록 그
 분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분은 육신을 취하셨습니다. 우리들
 에게 부활을 유산으로 주시기 위해 사람들 대
 신에 불명예를 안으셨습니다.”(『말씀이 사람
 이 되심에 대해』, 54,3)

빠시디아의 소티리오스 대주교와 모든 성
 직자들과 협력자들과 함께 여러분 모두에게
 복된 성탄절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한국의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대주교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아투스 산의 파이시오스 성인(1924-1994)



어느 날 원로께서 방문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제 경험에 비추어보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두 개의 부류로 나뉩니다. 셋째 부류는 없고, 사람들은 첫째나 둘째 부류에 속합니다. 첫째는 파리를 닮았습니다. 파리의 주된 특징은 더러운 것에 이끌린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꽃들로 가득한 정원에서 파리는 꽃은 돌아보지도 않고 땅에 있는 더러운 것 위에 가 앉습니다. 그리고는 그 주위에 똥을 누기 시작하고, 이내 고약한 냄새를 맡으며 기분 좋아합니다. 만일 파리가 말을 할 수 있다면 누군가 정원에 있는 장미꽃을 보여 달라고 말했을 것이고, 파리는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나는 장미꽃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내가 아는 것이라고는 어디서 쓰레기와 더러운 오물을 찾을 수 있나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파리를 닮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배웠고, 그래서 언제나 선한 것이 있다는 것을 무시하거나 거부하고는 삶에서 나쁜 것들을 찾습니다.

다른 부류는 벌과 같은데 이 부류의 주된 특징은 항상 달콤하고 멋진 것을 찾아서 그 위에 앉기를 즐긴다는 것입니다. 만일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고 달콤한 것은 한쪽 구석에 조금 있는 방안에 벌이 있다면, 벌은 더러운 것은 돌아보지도 않고 바로 달콤한 것 위에 가 앉을 것입니다. 자, 이제 쓰레기가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고 벌에게 묻는다면 벌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해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어디에 꽃과 달콤한 것과 꿀과 설탕이 있는지 하는 것이랍니다.” 곧, 벌은 삶에서 좋은 것만을 알고 있으며, 온갖 사악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사물의 좋은 면만을 바라보는 둘째 부류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동료 인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언제나 악을 덮어 가리려고 애씁니다. 반대로 첫째 부류의 사람들은 악을 드러내어 폭로하려고 애씁니다.

누군가가 와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말을 하며 저를 어려운 상황 속으로 내몰 때, 저는 위에서 든 예를 말해줍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어떤 부류에 속하기를 바라는지 묻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함께 친구가 되어 사귀 같은 종류의 사람들을 발견하게 될 테니까요.

▶ 아타나시아

소 식

성탄 대축일 예식 안내

- 2015년 12월 24일(목)
 - 오전 9:00 ▷ 성탄절 대시과
 - 오후 6:00 ▷ 성탄절 대만과, 성 대 바실리오스 성찬예배
- 2015년 12월 25일(목) 성탄 대축일
 - 오전 9:00 ▷ 성탄절 조과,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스 성찬예배
 - 오전 12:00 ▷ 성탄 대축일 주일학교 행사

(각 성당에 정확한 예배 시간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교구

■ 겨울 수련회 ▷ 2016년 1월 14일(목)~17일(일)까지 춘천에서 겨울 수련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번 겨울 수련회에서는 '선교'를 주제로 하여 학생들과 함께 배우고, 토론할 계획입니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가비는 50,000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성당 사무실로 문의해 주십시오.

울산 성 디오니시오스 성당

■ 성 디오니시오스 성당 축일 예배, 세례성사 ▷ 지난 13일 성 디오니시오스 대주교의 축일과 특히 울산 성 디오니시오스 성당 설립 10주년을 맞아 암브로시오스 대주교의 주재로 축일 기념 성찬 예배가 있었습니다.

12일 저녁에는 대만과와 아르토클라시아를 거행하였고 13일에는 세례성사와 성찬예배 그리고 리타니아(성화 행렬)를 거행하였습니다. 많은 교인들은 이 날 세례성사를 받은 새로운 교인들과 함께 이 기쁨을 함께 누렸으며 예배 후에는 오찬과 주일학교 어린이들의 축일 공연 등으로 이날의 기쁨을 더하였습니다.

이 날 세례받은 넉타리오스 박창은, 유스티나 박정아 그리고 이리니 왕은채 교우들에게 하느님의 자비와 은총이 항상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